

“군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자”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건의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 진행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임실군수 당선인이 행정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현장중심 정책,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당선인은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기존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책은 한 번 수립되면 별다른 점검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행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1일차 업무보고에서 “기존 군정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군민 삶 전반을 살피는 균형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직원들의 고충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군민중심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한 당선인은 “복합 인허가 민원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스톱체계를 구축해 군민 편의를 높이자”며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정착은 직접 행정 생각”이라고 행정절차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임실군수 당선인이 행정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축, 현장중심 정책,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복지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어르신 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 접근을 주문했다.

한 당선인은 “다문화가정을 만나보지 않거나 자녀들의 언어 적응과 학교생활,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실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르신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이미용권이나 목욕권 같은 사업도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실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수질오염총량제는 군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문가 의견도 듣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위생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과 현장 안전관리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 중심의 소통을 주문했다.

한 당선인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 분야에서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과 지역 자원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있는 자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며 “산림자원을 농가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민선 9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현장 찾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강조

남원시에서는 여름철 본격적인 홍수기(6월~9월)를 맞아 섬진강 홍수통제소출장소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과 재난대응의 최적지인 남원시에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을 건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섬진강 유역 현장을 방문,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남원에 위치한 섬진강 홍수통제소출장소를 거쳐 곡성 침실습지, 수달생태공원 등 현장을 두루 살펴봤다.

2020년 8월 남원시는 유래없는 집중호우(강수량 542mm) 및 섬진강댐 제방 붕괴에 따른 홍수피해(약 730여)이 전국 피해지역 17개소 중 3번째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환경부에서는 2022년에 섬진강홍수통제소를 남원에 개설했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전북특별법 및 도시공약(안), 대선공약(안) 등에 포함하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1996년에 구성된 섬진강환경영향협의회(10개 시군)에 가입하여 섬진강수질개선 종합계획 용역 수립 및



2020 집중호우 피해관련 공동성명서 배포, 공동건의문 전달 등 지속가능한 섬진강수계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섬진강은 유역면적 4,914km², 연장 223km로 영산강보다 유역면적도 넓고 연장도 90여km 더 길지만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남원시 섬진강홍수통제소는 영산강 홍수통제소 출장소로 인력 6명이 비상근무, 홍수예보, 갈수 및 가뭄 현상 대응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부족 및 전담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및 5대강 물관리 체계로 전환한 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모를 진행하여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의정 역량 강화 위한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19일 의정실에서 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순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만성)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순화 고문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 임실군의회와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 자문 △의회 관련 행정소송 수행 △의정활동 전반에 필



요한 행정법률 해석 등 상시적인 법률 자문과 전문적 지원을 접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전북 최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

현장 중심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복지 사각지대 발굴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역 청년 실업자를 우선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 전화상담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기간 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5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자진 납부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체납이 누적된 한 체납자가 상담

을 통해 스스로 보유 차량의 매각 및 공매 처분을 요청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체납관리단은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체납 징수활동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국생활체육당구대회·남원 전국당구선수권대회 개최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과 이백행복나눔센터에서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대한당구연맹이 주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당구연맹, 남원당구연맹이 주관, 국내 최대 규모의 당구 축제인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당구대회 및 2026 남원 전국당구선수권대회

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와 전문체육 선수 대회가 함께 열리는 전

국 규모의 당구 대회로, 주요 경기 관람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함께 마련돼 선수와 관람객이 함께하는 스포츠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는 대한민국 당구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대표 대회로, 올해도 전국 각지의 동호인들이 출전해 종목별 경쟁을 펼치며, 전문체육 부문인 2026 남원 전국당구선수권대회도 함께 열려 종목별 정상 자리를 두고 경기에 나선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행정직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지역 소식통

남원시민의 장 후보자 공개 모집

남원시는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최고 영예의 상인 제32회 남원시민의 장 후보자를 22일부터 오는 7월 31까지 공개 모집(추천)한다.

남원시민의 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문화장(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분) △체육장(남원 체육 진흥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분) △효행장(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분) △봉사장(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분) △산업노동장(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분) △애환장(출산인양으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으로 부문별 1명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 자격은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출신지로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시청 간부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통해 시청 행정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현장대응 전문 교육

순창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대상 현장대응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3층 영상회의실과 경천 일원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현장대응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요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포럼협회 소속 수상안전전문 강사인 류승진 강사가 말아 이톤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